

6월 모의평가, 작년 불수능처럼 어려웠다

시교육청, 실재점 분석결과 발표

영어 90점 이상 1등급 비율 감소

서울대 인문 404점·자연 408점

지스트 406점·전남대 영교 366점

지난달 9일 치뤄진 '2023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는 불수능으로 불리던 전년도 수능 난이도와 유사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교육청은 12일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진로진학지원단 진학분석팀 주관으로 진행된

'2023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실재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6월 모의평가의 난이도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모든 영역이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했다.

국어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149점으로 전년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어렵게 출제됐고, 까다로운 문항이 있어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더 높았을 것으로 파악했다. 수학은 최고점이 147점으로 전년도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됐으나, 전반적으로 풀이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준킬러 문항이 다수 출제돼 수험생들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광주지역 전체 응시자

는 1만 748명으로 작년과 비교해 500명 정도 줄었다.

국어는 총 1만 698명 중 '화법과작문'은 8,180명(76.5%), '언어와매체'는 2,518명(23.5%) 응시했다. 수학은 전체 응시자 1만 717명 중 '확률과통계' 5,605명(52.3%), '미적분' 4,597명(42.9%), '기하' 514명(4.8%)의 분포를 보였다. 영어는 난이도가 높았던 전년도 수능(1등급 비율 6.25%)보다 더 어렵게 출제돼 90점 이상인 1등급 비율이 5.74%로 감소했다.

실제 수능에서도 영어가 어렵게 출제된다면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탐구영역 선택과목 간의 표준점수 최고점을 살펴보면 사회탐구는 '윤리와사상'과 '경제'가 74점으로 가장 높고, '생활과윤리'가 66점으로 가장 낮아 8점 차이가 났다. 과학탐구에서는 '지구과학II'가 85점으로 가장 높고, '물리학I'이 67점으로 가장 낮아 18점 차이가 났다.

서울대의 경우 전년도부터 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하지 않고, 표준점수 자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탐구영역에서 선택과목에 따른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진로진학지원단 진학분석팀이 '국어·수학·탐구' 3개 영역 표준점수 600점 만점 기준(영어·한국사 제외)으로 지원 가능 점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학교의 경우 인

문계열 404점 내외, 자연계열 408점 내외에서 지원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연세대는 인문계열 393점 내외, 자연계열 405점 내외이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원가능 점수는 406점 내외, 광주교육대학교는 367점 내외, 지난해 첫 신입생을 모집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408점 내외에서 지원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대 ▲인문계열은 영어교육과 366점, 국어교육과 363점, 행정학과 361점 ▲자연계열은 의예과 420점, 치의학과 413점, 약학부 410점 내외에서 지원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 ▲인문계열은 영어교육과 337점, 국어교육과 328점 ▲자연계열은 의예과 416점, 치의예과 411점, 약학과 408점 내외로 분석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작년 수능에서 이과생들의 '문과침공'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번 모평 역시 수학 선택과목 중 미적분을 고른 수험생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명예인권 워크숍 12일 오후 광주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2 북구 명예인권 워크숍'에 참가한 문인 북구청장, 북구 명예인권 요원 등이 인권존중 공동체 구현을 다짐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이정선 시교육감 "교원정원 대폭 늘려야"

정부 감축 방침 반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현 정부의 교원 감축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선 교원 정원을 현재보다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교육감은 지난 1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해 교원정원 축소 정책의 부당성을 들며 교원정원 확대를 피력했다.

이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경제적 단순 논리로 접근하기보다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교육감은 또 "창의력 신장을 위한 토론학습이나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자기 주도적 개별화 수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교실당 교사 정원을 3~4명까지 늘릴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기본학력 향상을 위해 몇백억 들

여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나 낙인 효과 등 부작용도 많다"며 "결국, 모든 문제는 교실 수업에 답이 있고 교육과정 속에서 해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광주도 기초학력전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55개 중 8개 교편"이라고 현실을 지적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관련해서 "이 정책의 성패도 전문성을 가진 교사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 (6M도로인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상무지구(상가매매)

1) 감정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4억가)

2) 월수익 350만 (보4천)

3) 평수140평, (전용100평)

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 시비없음, 시설완비)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산구(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정덕동(아파트) ▶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처평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 4억5천 (5/26)
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정가 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 2억8천(7/19)

화순전남대병원 '개방형 의료혁신센터' 건립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미래 바이오헬스케어 선도할 '개방형 의료혁신센터'를 건립한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13일 오전 11시 병원 제4주차장 부지에서 지상 7층-지하 2층 규모의 '개방형 의료혁신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한다

고 12일 밝혔다. 센터 건립에는 국비 151억원과 자부담 472억 원 등 총 사업비 623억원이 투입된다.

2024년 완공 예정인 이 센터에는 다양한 연구센터와 관련 지원센터, 바이오벤처기업, 산업체 기관 등이 입주해 첨단 의생명 연구와 의

료 산업화를 이끌게 된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이 센터를 산·학·연·병·관의 협업과 공동연구를 통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건립은 의과대학 부지에 건립 중인 '국가 면역치료혁신센터'와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화순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중심축을 이루며, 병원 중심의 국가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유지하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환준 기자

전남교육청 정기인사 단행 신임 행정국장 박영수 관장

전남도교육청이 12일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15일자로 단행했다. ▶관련명단 17면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주민직선 4기 갑대중 교육감 취임 이후 첫 인사로 5급 이상에 대한 정기인사와 휴직 등 인사요인이 추가로 발생한 6급 이하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가 포함됐다.

인사규모는 총 138명으로 승진 70명(3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63명), 전보 61명, 퇴직준비교육 등 2명, 신규임용 5명이다. 신임 행정국장으로는 박영수 장성공공도서관장이 발탁됐다.

박 신임 행정국장은 감사관 청렴팀장, 재정과장 등 도교육청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교육행



정 전문가로 청렴하고 민주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해왔다. 또한, 1989년 강진고등학교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각급 학교, 지역교육청 등에 근무하며 교육현장 지원을 주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 갑대중호 출범에 맞춰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요 보직과 5급 이상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